

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2〉기후변화, 극복 이렇게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 본부는 지역 농·축협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 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는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편집자주〉

‘꿀벌 대체’ 수정벌 생산해 공급

장성 황룡농협...수정벌 생산·유통

호박벌, 꿀벌보다 크고 털 많아
야생 최고 꽃가루 매개 곤충 꼽혀
실내에서 연중 대량 사육 ‘장점’

장성 황룡농협 직원들은 요즘 부쩍 늘어난 자식(?)들 돌보느라 여간 바쁜 게 아니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지, 너무 더운 건 아닌 지, 방이 건조한 건 아닌 지 행기느라 근무 중에도 들락날락하며 살뜰히 챙긴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건강 상태를 체크 정도가 됐다.

황룡농협의 자식같은 호박벌 애기다. 꽃가루를 수술에서 암술로 옮겨 수분을 이루도록 돕는 벌, 나비 등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기후 변화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다가 아예 호박벌을 생산하는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 사과 산지인 장성에서는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수분을 하지 못하면서 과수 농가들의 생산량 저하로 이어졌다.

호박벌은 꿀벌보다 더 크고 뚱뚱한 몸의 털에 꽃가루를 잔뜩 묻힌 채 꽃 사이를 날아다녀야 생 최고의 꽃가루 매개 곤충 중 하나로 꼽힌다. 토마토나 고추류 등의 수정에서는 꿀벌마저 압도한다고 한다. 또 꿀벌과 비교해 활동적이어서 저온 및 온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분 활동이 더 활발하고 실내에서 연중 대량 사육할 수 있어 언제든지 시설·과채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딸기(100%), 수박·참외(93%), 토마토(84%), 멜론(72%), 사과(20%) 등 27개 작물이 꿀벌, 호박벌 등 수정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지구 온난화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농민들을 매년 현장에서 지켜보던 황룡농협 직원들이 ‘1농협 1대표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 김원일 상임이사, 김희락 상무 등 직원들이 관내 시설 농가를 찾아 직접 키운 호박벌통을 공급했다. 황룡농협은 ‘1농협 1대표사업’으로 호박벌 공급 사업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황룡농협 제공〉

사업’으로 생각해낸 수익 사업이었다.

황룡농협은 농촌진흥청의 수정벌 생산 기술 개발과 경북 예천군의 호박벌 보급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업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김희락 상무도 “농진청은 지난 2002년 꿀벌 대신 뒤영벌(호박벌)을 사용하는 화분 매개 기술을 개발했고 민간 업체들이 호박벌을 생산해 농가에 유통중”이라며 사업 가능성을 높게 설명했다. 황룡농협은 이같은 점을 들어 직접 생산하면서 높은 공급단가를 낮춰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수정벌을 직접 생산·공급해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5~7마리의 호박벌과 여왕벌이 담긴 벌통(가로 28·세로 22cm)을 구입해 3주 정도 100마리로 키워낸 뒤 농가에 보급하는 걸 목표로, 임시로 시범사업장(20평)을 갖췄다. 올해 첫 사업 목표는 5000통. 3년 간 1만 5000통으로 늘리고 이후 대규모 양곡창고를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구

상을 세워놓았다. 벌통 1개의 호박벌이 2km 가량, 하우스 660㎡를 돌아다니며 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첫해다보니 부족한 게 많다. 예산이 없어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신병식 과장 등 직원들이 자식 돌보듯 주말에도 사업장을 나와 온도·습도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황룡농협 김원일 상임이사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곤충잡입연구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지원 등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전남본부도 수정벌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농업특화사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은 “기후변화로 화분 매개 곤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박벌 생산·유통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꾀하며 안정된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배 수정 돕는 꿀벌 식량 밀원수 보급

나주 배 원예농협...밀원·수분수 공급

배, 자가수분 안돼 인공수분 필수
수분수 등 심어 꽃가루 확보
수입에 의존하던 꽃가루 ‘자급’

나주배 원예농협 직원들은 요즘이 제일 바쁘다. 본격적인 배꽃 개화기를 앞두고 수분(受粉·종자식물에서 수술의 화분을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에 나선 나주 지역 배 농가들에게 공급할 밀원수, 꽃가루 확보를 위해 움직이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라고 한다.

지난 27일 찾은 나주배원협에서는 공터 한켠에서 수분수 공급을 위한 묘목 접목 작업이 분주히 이뤄졌으며 다른 한 쪽 공터에서는 밀원수 식재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나주는 전국 최대의 배 생산지다. 지난해의 경우 2098개 농가가 전남 전체 배 재배면적(2686ha)의 절반이 넘는 1642ha에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3만 6133 t의 배를 생산했다.

한 해 수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배꽃 수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농가도, 원예농협도 인공수분할 인력을 구하고 꽃가루를 확보하느라 바빠서 바쁘다.

배는 과일나무 특성상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옮겨지는 ‘수분(受粉)’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배꽃 개화기에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이 사라지다보니 배 농가들이 양봉 농가에서 직접 꿀벌을 사오거나 비싼 인공수분 방식으로 배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되는 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품종인 ‘신고배’는 나주 배 농가의 주 생산 품목으로 자가수분이 되지 않아 인공수분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필요한 꽃가루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격적인 배꽃 개화기를 앞두고 인공 수분(受粉)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 나주배원협은 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밀원수, 수분수 공급 사업을 추진중이다. 〈나주배원협 제공〉

그나마 국내에 꽃가루를 공급해온 중국이 지난해 병해 문제 등으로 채집량이 크게 줄었고 김역도 강화되면서 지난해 4만 1000원 수준이던 꽃가루(20g) 단가도 올해는 6만원대로 치솟는 등 농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나주배원협이 밀원수·수분수 공급 사업을 대표 전략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이같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원협측은 애초 벌통임대사업도 추진했다가 자가수분이 되지 않는 신고배 농가가 많은 점을 들어 밀원수·수분수 공급과 꽃가루 보급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벌이 꿀을 따기 위해 찾아드는 나무, 밀원수(蜜源樹)를 농가에 꾸준히 공급해 꿀벌들이 사계절 내내 찾아와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수정을 유도하는 작물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수분수’를 심어 자가 수분을 돕고 양질의 꽃가루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장기

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양봉업(꿀벌과 뒤영벌 포함)의 화분매개가치가 6초 6001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고 벌꿀 생산액 1392억원(2020년)의 47.4배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벌통 임대료 들어가는 비용 이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가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는 게 나주배원협 이준현 과장 설명이다. 나주배원협은 또 꽃가루 확보에 필요한 건조기 창고 건립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관심도 필요하다.

나주배원협 이동희 조합장은 “배 재배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맘을 흘린 보람이 가을 명품배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밀원수·수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경총 “지역 기업 찾아가 돕습니다”

회원기업 대상 매주 수요일 국·시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찾아가 돕는 날’로 지정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경총 임직원들은 ‘회원 기업 돕는 날’을 통해 매주 수요일 회원 기업을 찾아 국·시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ESG 경영, 기업 이미지·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회원 기업 70%가 제조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마케팅, 전시회 참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해 이 같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회원 기업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내국인 채용을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외국인 노동자 취업 기간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광주경총에 건의하기도 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회원 기업 돕는 날’을 통해 지역 기업이 경기 침체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장기간 거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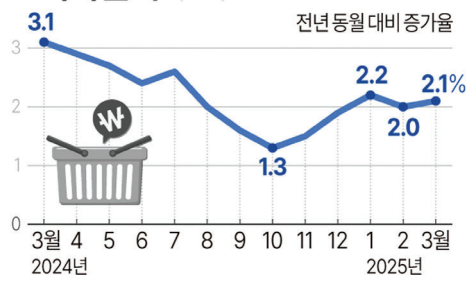
한달새 무값 두배...장보기 무섭네

통계청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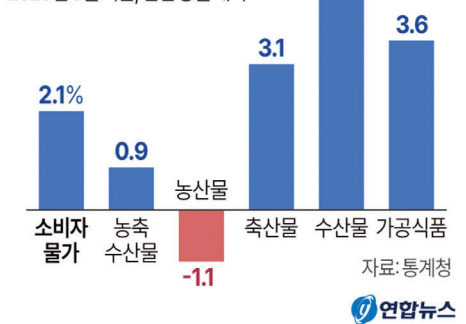
배추 63.3%·귤 31.8% ↑

보험서비스료 15.1% 상승

소비자물가추이



주요 품목 증감률
2025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상승했다. 농산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 물가 등도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7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 1.9% 올랐다.

광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1%대로 완화된 뒤, 12월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2%대로 치솟았다. 이후 점점 상승폭을 줄였으나, 지난달 4개월만에 1%대로 재진입 했다.

지역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9.35로 전월(119.38)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 동월(116.95)보다는 2.1% 상승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신선채소 등 신선식품이 견인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전보다 2.1%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어개(6.3%), 신선채소(6.1%) 등이 올랐고, 신선과실(-2.2%)은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무가 전년 동월에 견줘 109.4% 올랐고, 배추(63.3%), 귤(31.8%), 오징어(22.5%), 보험서비스료(15.1%) 등도 대폭 뛰었다.

전남 3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호남권 잠재력 큰 벤처기업 키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17일~5월 7일 2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 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제주 창업 기업 20개사를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사업 대상은 창업 7년 이하(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이다.

그동안 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

년 6개월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업 선정은 평가지표 내 ‘지역 특화 평가지표’ 항목에 배점 20점을 할당해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에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서비스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석 광주·전남중기청장 직무대리는 “단순 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고 내용은 중소기업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벌써...삼성,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광주사업장 등 여름 수요 대비 ‘AI 제품’ 10일 앞당겨

삼성전자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에 따른 에어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인공지능(AI) 에어컨 생산라인을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가동하기로 했다.

2일 삼성전자·광주사업장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사업장 등 전국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에어컨 설치 전담팀 운영도 작년보다 한 달여 빠르게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에어컨 ‘무풍’ 기능에 AI 기술을 접목해 에어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AI) 가전=삼성’ 공식을 굳히면서, 사실상 국내 AI에어컨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AI 에어컨 신제품 모든 모델에 ‘AI 쾌적’, ‘AI 절약 모드’ 등 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AI 쾌적’ 기능은 소비자의 사용 패턴과 날씨, 실내·외 온·습도를 토대로 강력한 냉방이 필요할 경우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냉기를 유지할 때는 ‘무풍 모드’를 제공한다.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해 장시간 에어컨을 켜두는 여름철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를 선보인 데 이어 같은 달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등을 공개하며 AI 에어컨 신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5.86 (-15.53)
↓ 코스닥	684.85 (-6.60)
↑ 금리 (국고채 39년)	2.584 (+0.003)
↓ 환율 (USD) 〈오후 4시 38분 기준〉	1462.75 (-9.15)